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제28대 장로, 10명 피택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7월 24일까지 교육

지난 주일 IV부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제28대 장로 20명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여 10명을 피택했다. 이날 세례교인 중 3,163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2/3선인 2,108표를

획득한 사람이 김인관, 안종욱, 이인상, 최명환, 임무천, 정정주, 양종섭, 강봉수, 이병욱, 박상준 집사로 이들이 피택되었다. 피택된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7월 24일

까지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장로피택자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장립식을 갖게 된다.



김인관 집사



안종욱 집사



이인상 집사



최명환 집사



임무천 집사



정정주 집사



양종섭 집사



강봉수 집사



이병욱 집사



박상준 집사

금주는 고난주간

4월 1일(금)은 전교인 금식일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등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기를 바라며 금주 1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로 하였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4월 1일)에는 전 교인이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 성찬식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에는 94년도 제2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지나온 날의 잘못에 대한 회개, 앞으로 삶에 대한 헌신, 결심 등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오늘 IV부 예배후 교구별로

오늘 IV부 예배후 각 교구별로 새가족환영의 시간을 갖는다.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이는데 될수 있는대로 많은 교구식구들이 참석하여 진정한 환영의 시간이 되어야 할것이다.

충현전도대 대원모집

4월3일 ~ 6월 5일까지 훈련

94년도 충현전도대 대원교육이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변경하여 실시된다. 모든 성도들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고자 실시하는 전도대 훈련은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갈릴라홀 및 전도현장에서 행할 계획이다.

기도운동·성령운동·전도운동의 3대 강령을 내걸고 시행하는 본 훈련은 개인경건 생활훈련, 전도훈련, 육성훈련, 제자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은 교육국에서 4월 2일까지 받는다. 등록비는 2,000원이다.

교육내용 및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4월 3일 개강예배 성령님의 역할:

임성환 목사

4월 10일 방문 전도법: 박정규 목사

4월 17일 하나님의 계획: 이인우 목사

4월 24일 사람들의 상태: 이홍성 목사

5월 1일 하나님의 예비: 김용기 목사

5월 8일 사람들의 반응: 장경철 목사

5월 15일 결신시키는 법: 이종대 목사

5월 22일 육성(말씀훈련): 한용관 목사

5월 29일 이의와 질문 처리법:

홍창민 목사

6월 5일 관계중심전도: 성봉환 목사

폐강예배 임성환 목사



60만 국군을 그리스도께로

제10회 군목후보생수련회가 지난 3월 22일(화) 우리 교회 국제 회의실에 열렸다. 사단법인 군목후보생 수련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군종실이 주관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한 본 수련회는 매년 군목후보생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고 군에 대한 이해와 군종업무에 대한 개성을 익히기 위해 매년 모이는 모임이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개회예배 설교와 '2천년대를 향한 군선교를 전망한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마

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심판주 예수님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의 칭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은 예수님 자신만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본문에 표현한 그대로 영광 속에서 오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정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제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오실 때부터가 그야말로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장엄하게 오십니다. 구름타고 영광 속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첫째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안과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역경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불안이고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죄짓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 심판의 방법과 심판의 내용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있게 될 심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40절과 45절에 보면 그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즉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나, 또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두 가지의 면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주님께 한 것으로, 또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하시고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안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32절과 33절에 보면 첫째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거기에는 예외도 없고 빠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각각 분별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모으고 하나하나 각각 분별합니다. 세번째는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컜질로, 곡식과 가라지로 완전히 구별을 한 다음에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왼쪽은 좌주의 자리입니다. 각각 거기에다가 두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천국에는 삼심제도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억울합니다'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우주적인 심판이고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3. 양과 염소

37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의인들로 비유한 것은 양의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양은, 본문의 의인들은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둘째로 사랑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라고 하시자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충현강단



최후의 심판

(마 25:1-13)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마지막 심판할 때의 여섯 가지의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 여섯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편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염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염소는 싸우기를 잘합니다. 뿔을 가지고 싸웁니다. 두번째로 이 염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심리가 있어서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염소는 영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연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일연자가 못되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염소와 같은 생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제 모이던 싸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소를 본 뵈면 안됩니다.

34절에 보면 주님께,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예비된 나라, 그것은 바로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좀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있는 투쟁과 갈등 그 후에 오는 안식입니다. 둘째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가

지게 되는 교제입니다. 셋째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고통이 없는 영적인 몸(靈體)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면전에 서는 그 영광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 저주는 크게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 혹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저주는 악인과 사탄과의 연합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세번째는 불의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불에 타버리면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계속 고통만 주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번째 저주는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마22:13). 어

둠이라는 말은 비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또 이 어둠은 생명의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4.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인자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른쪽에, 또 불신자들은 왼쪽에 놓는 그런 일이 있게 될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신전(神前)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Coram Deo)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before God)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두번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염소처럼 그저 제멋대로 가려고만 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우리들이 양처럼 바로 살려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아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 40절과 45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소년과 자들도, 병이 들어져 자기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고아들도, 나이가 많아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노인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약 1%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나 세끄러운 구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께 심판하실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내게 냉수를 주었느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나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내가 벗었을 때에 너는 내게 옷을 주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기도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제와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장 우 천

(목사, 교육연구소 지도)

1. 본 주제의 중요성: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다.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다. 역사상으로는 이번 주간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슴 벅찬 기쁨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감상과 기쁨에만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독교인들만의 일로 다루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 사건들이며 복음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 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이룩된 종교라는 말이다. 역사적 종교에 대립되는 말은 사유적 종교이다. 사유적 종교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기초한다.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은 기독교만 제외하고 전부 사유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사유적 종교들은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무한한 우주와 역사를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이 더 많다. 몇몇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사유적 종교들은 절대진리로서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므로 참된 종교로서 믿어서는 안된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로서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의 사실성 여부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갖게 된다.

- 1) 이 사건들은 사실인가?
- 2) 이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3) 이 사건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2.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사실인가?

이 사건들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은 성경뿐이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었고, 사건이 있는 후 곧 기록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을 부인하는 기록들은 사건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상당기간 경과한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록된 것들(예: 코란)이므로 성경만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간의 행적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베다니 도착 / 금요일(요12:1)
- 2) 안식일 / 토요일
- 3) 예루살렘 입성 / 주일(마21:1-11, 막11:1-11, 눅19:28-44, 요12:12-19)
- 4) 성전을 깨끗케 하심 / 월요일(마21:10-17, 막11:15-18, 눅19:45-48)
- 5) 논쟁과 비유 / 화요일(마21:23-24,

51, 막 11:27-13:37, 눅20:1-21:36)

- 6) 휴식 / 수요일.
- 7) 유월절 / 최후의 만찬. 목요일(마26:17-30, 막14:12-26, 눅22:7-23, 요13:1-30)
- 8) 십자가에 달리심 / 금요일(마27:1-66, 막15:1-47, 눅22:66-23:56, 요18:28-19:37)

9) 무덤 속에 계심 /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주일날 한밤중.

10) 부활 / 주일날 새벽(마28:1-13, 막16:1-20, 눅24:1-49, 요20:1-31)

이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과 십자가 처형의 장면, 그리스도 부활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 본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종교 재판 (유대인에 의한)
- 1차(요18:12-14) 안나스 재판 절차 승인
- 2차(마26:57-68) 가야바 사형판결 : 신성 모독죄
- 3차(마27:1-2) 산헤드린 공의회 사형판결 승인
- 국가 재판 (로마 법에 의한)
- 4차(요18:28-38) 빌라도 유보
- 5차(눅23:6-12) 헤롯 유보
- 6차(요18:39-19:6) 빌라도 유보, 군중들에게 굴복 십자가의 사형확정

이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대는 로마의 디베리우스 가이사 황제(서기 14-37년) 기간이었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체적 인물들이었다: 안나스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 6-15년), 가야바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 18-36년), 빌라도 (로마의 유대 총독: 서기 26-36년), 헤롯 (유대왕: 기원전 4-서기 39년).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은 다음과 같다.

- 골고다 도착-갈보리(마27:33, 막15:22, 눅23:33, 요19:17)
- 전통제로 쓸개탄 포도주 제공. 예수님 거부(마27:34)
- 십자가 처형(마27:35)
- 첫번째 외치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눅23:34)
- 그리스도의 곁을 나눔(마27:35)
- 예수님 조롱 당하심(마27:39-44, 막15:29)

- 한 도적도 예수님 조롱. 다른 도적 예수님 믿음(마27:44)
- 두번째 외치심,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 세번째 외치심, "여자여 당신의 아들 이니이다"(요19:26-27)

- 어둠(마27:45 막15:33)
- 네번째 외치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마27:46-47, 막15:34-36)
- 다섯번째 외치심, "목 마르다"(요19:28)
- 여섯번째 외치심, "다 이루었다"(요19:30)
- 일곱번째 외치심, "아버지, 나의 영혼을 위탁하나이다"(눅23:46)
-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심(마27:50 막15:37)

셋째, 그리스도 부활의 현장은 다음

과 같다.

-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가다(마27:55-28:1)
- 돌이 굴러진 것을 발견하였다(눅24:2-9)
-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떠났다(요20:1-2)
-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까이 다가갈 때 천사를 만났다(마28:1-2)
-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마리아 달려감(마28:8)
- 베드로와 요한 도착. 안을 들여다 보고 돌아감(요20:3-10)
-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돌아섬, 두 천사를 봄, 예수님 만남(요20:11-18)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심(요20:17-18)
-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돌아 옴(눅24:1-4)
- 돌아와서 두 천사를 봄(눅24:5 막16:5)
- 천사들의 전하는 말을 들음(마28:6-8)
-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마28:9-10)

부활의 현장 외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막달라 마리아에게(요20:14-18 막16:9)
- 무덤으로 부터 돌아가던 여자들에게(마28:8-10)
- 베드로에게(눅24:34, 고전 15:5)
- 저녁 무렵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눅24:13-31)
- 사도들에게-도마가 없었을 때(눅24:36-45, 요20:19-24)
- 일주일 후에 사도들에게-도마도 있었을 때(요20:24-29)
-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요21:1-23)
-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사도들과 500여 믿는 자들에게(고전15:6)
-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야고보에게(고전15:7)
-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행1:3-12)
- 다메섹 근처에서 바울에게(행9:3-6, 고전15:8)
- 예루살렘 근교에서 스테반에게(행7:55)
- 성전에서 바울에게(행22:17-21, 23:11)
- 뱃모섬에 있던 요한에게(계 1:10-19)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3.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언되었던 일이었다. 인간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타락하였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결핍을 수 없는 죄의 물결 속에 빠져 들었다. 그대

로는 인간들은 영원히 죄 속에 살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씻어줄 방법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어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요3:16-17).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드리어진 완전한 제사였고 하늘 나라의 제사 원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희생을 기뻐하셨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승리의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들을 살펴 보아야만 십자가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시면서도 단호하신 모습과, 그 길을 만류하면서도 용기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해치는 모함 속에서 스스로 정죄당하는 그 당시 악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4.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부활이라는 값진 댓가를 치루시고 인간들의 속죄를 성취하셨다.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남은 것은 속죄의 은혜를 적용받는 것뿐이다. 이 속죄를 적용받는 것이 구원이다. 속죄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온갖 축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표현도 지극히 적은 것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심한 고난가운데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삼백 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순수한 사랑과 존경, 헌신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 사형을 당한 죄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정치적 종교적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 분의 시인이자 자신의 새 무덤에 잘 모셔 놓는 일을 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적으나마 믿음의 용기를 배워야 한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여 일요일 아침 새벽 일찍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그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배워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 주셨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표현중 중요한 것은 그 분께서 당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증언하는 역할을 부지런히 하는 일이다.

시

입성하시는 예수

말(馬)대신 천하고 못생긴 나귀
태어나서 한번도 타보지 않은
흙없는 어린 나귀
너는 우리들보다 장하구나

왕의 왕 예수 어린 나귀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성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 소리높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물 오른 종려나무가지 꺾어 환영의 만세

종려나무가지 꺾어 길에 깎아 올리
겉옷 벗어 땅에 깎아 올리
기다림에 사무쳐 양손 높이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나무 중에 쓰임받은 복된 종려나무
흔한 짐승 중에 택함받은 어린 나귀
너희들은 장하도다 복되도다 귀하도다

다윗의 자손 예수 맞이할 때
우리들의 손 부끄럽구나
때 묻은 옷 수치스럽구나
겸손히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
호산나 호산나 앞드려 경배하세

우리도 변하여
종려나무 되게 하소서
못생긴 나귀 되게 하소서
어린 나귀 타신 예수 뒤따르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김운섭

(집사, 초등3부 교사)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4월 1일(금), 2일(토) 호주 한인연합 부흥집회 인도, 4월 3일(주일) 호주 부활절연합집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28일(월) 기독교 방송국 전직원 고난 주간 예배 설교, 목회자 세미나 강의, 29일(화) 고난주간 특별기도성회 인도(여의도 순복음교회)
2. 장로 피택집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잘 훈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3. 선교사로 파송될 김영대 목사의 파송준비(언어훈련)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되 시험이 없도록 지켜 주소서.
5.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되고 휴전선을 넘을 수 있게 하시사 전쟁없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6.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중국 순방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국익과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중국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제작 사진첩은 편집 중인데

아직 안 찍으신 제작께서는
3월 27일(주일),
3월 30일(수),
4월 3일(주일) 사흘 동안에 다 찍어야 합니다.
찍지 않은 제작은 사진첩에서 누락됩니다.

● 수리남 김창수 목사에게서 온 편지 ●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충성하면서
복음을 위한 열매를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선교위원장님, 미주국 위원들과 지도 목사님, 전임간사님을 비롯해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총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세 식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가운데 어느 한날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사역의 시간표를 따라 한주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총현의 식구들의 성탄카드를 받았습시다. 계속 기도하시며 앞으로 기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읽을 때는 새침이 솟는듯 하였습니다. 특히 4년 전에 초등6부에서 저의 지도를 받았다는 한 학생이 보낸, 지금 중등3부가 되어 그때 함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도 선교에 꿈이 있다며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편지를 읽을 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보다 먼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두 손이 세계선교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보내주신 성경공부교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과 선교대회 테이프, 선교잡지들을 잘 받았습시다.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신 교회와 선교위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재를 공부하는 시간에 이곳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매시간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성종 목사님의 저서들과 성탄카드, 새해 카렌다와 성탄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습시다.

이곳에서도 작년 12월 한달은 현지인과 한인 모두 성탄관련 집회와 행사들로 매우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반소에 옷을 입고 눈없는 성탄절을 보냈습시다. 특히 현지인들을 위해 작년 12월 18일(토) 성탄절 특별집회 때 현지인 장년교인 20여명이 메시지를 듣고 친교와 저녁식사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에는 현지인 성탄절예배 때는 120여명의 장년과 유년 현지인들이 본당을 메운 가운데 현지선교부가 준비한 선물도 나누면서 주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한인들을 위한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래 전에 와서 지금은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인 한국식당을 경영하면서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명망이 있는 한인가정이 있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때 그 여주인이 세례를 받고 얼마전에는 남편과 아들까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여 저녁성경공부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간절히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안식일 선교사님과 상의하여 올해 3-4월경 한인과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례식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교회에 새로 나오고 있는 자매 Alda와 그 딸 Chiouita, 자동차수리공인 Hemant와 Soekai, 올해 1월부터 나오고 있는 Rudolf, 자매 Rinette와 두 자녀 Marillio, Chanine 그리고 Ratoya를 비롯한 어린이 새신자 20명에게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월 초순에는 '틸틸(Till Till) 장애인교인'을 다시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시다. 이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지인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지인 아이들을 위한 야학이 3명의 크리스찬 현지인 교사진과 함께 1월 18일 개학하여 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시간 기도와 찬송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마치는 이 야학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인접국인 브라타쉬 자이아 나에서 사역중인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인 강대성 목사가족이 수리남을 방문하여 사

역의 소개와 격려는 나누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미국에 본 교단 내 파송선교사들의 지역모임으로 중미지역회를 결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리남은 남미대륙의 북쪽에 있어 한국 외무부에서도 중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주부와 주간총현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총회선교국 발간지 <미션저널> 최근호도 가능하시면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현교회의 교회소개 소책자(영문판, 19페이지)에 수리남 선교지가 빠져 있어 여가서 본국 파송교회를 소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아본 책자도 정정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혹시 지금은 수정이 되었는지요. 수정되는대로 몇부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리남 선교지의 상황은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던 한국대사관이 완전 철수하고 지금은 인접국 브라질주에 대사가 명목상 이 나라 신임장을 받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 교민들, 특히 어업기지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과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달여간 기름위기(주유중단)를 겪은 이 나라는 금년에 외국석유회사에 대한 지불보증이 1월로 중단된다는 보도와 함께 그것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평안한 가운데 전파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채류허가와 또 최근 이 나라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어 사역의 기간 동안 일하기에 행정적으로 완비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충성하면서 복음을 위한 열매를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

선교지에서 온 소식

